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애인체육회

고통 분담 예산 반납

정읍시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박기철)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한다.

정읍시 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뜻을 모아올해 계획했던 각종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예산 7천여만원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취소하는 대회는 제126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우수선수초청체육대회, 전국어울림태권도대회, 슬리더어울림전국대회, 전국보자야대회 등 5개 대회다.

장애인체육회와 종목단체는 어려운 시기에 체육대회의 파급효과인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 등을 놓고 대회 취소 여부를 고심했으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예산 반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관내 농업인단체
코로나19 극복 예산반납

정읍시 내 다수 농업 관련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시에서 지원을 결정한 보조금 중 일부 예산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읍시 추경예산 편성 기간에 맞춰 단체 회의를 가지고 농업인 해외연수, 풍물기원제, 선진지워크숍 등 12개 사업 1억 3천만 원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민단체가 주관하는 상반기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루기로 연기된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 예산편성 등 시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농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반납에 동참한 것이다.

이번 추경에 반납한 보조금은 정읍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상점가를 살려라”

유진섭 정읍시장, 식당 등 방문 현장 의견 청취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사용 현황 점검

유진섭 시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로와 새암로 상점가를 찾아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유 시장이 일선 경제·민생 현장을 찾는 것은 5일 만이다.

앞서 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달 29일 채광을 시장과 연지시장을 찾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

드를 활용한 장보기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유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정읍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고,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유 시장은 상점가 인근 카페에서 중앙로와 새암로 번영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기



유진섭 시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로와 새암로 상점가를 찾아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부양 정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어, 서점과 스포츠 매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시와 유관기관, 상인회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읍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청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며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또한 경제활성화 직원 70여 명이 중앙로와 새암로 상점가 곳곳을 돌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침체된 지역 상점가 살리기 기에 힘을 보탰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족 시민들도 안심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내자”

유기상 고창군수, ‘스테이 스트롱’ 글로벌 캠페인 동참

유기상 고창군수가 3일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외교부에서 시작돼 국내·외로 퍼지고 있다.

손팻말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비단 거품이 더해져 손을 씻는 로고에 ‘스테이 스트롱’이라는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을 철저히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의 지명을 받은 유기상 고창군수는 ‘스테이 스트롱·코로나 극복! 고창군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지만, 확산방지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여러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 불편하지만 미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



유기상 고창군수가 3일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다.

든 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다음 캠페인 주자로 고창군 우호교류도시인 석야작 중국 조장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우석 장성군수를 지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현충일 65돌’… 정읍시, 청사에 초대형 태극기 게첨

팀에서 제65주년 현충일 추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추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해 국민의례와 묵념, 현화·분향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수의 유족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품에 비치시고 오랜 세월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신 보훈 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나라를 위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유진섭 시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로와 새암로 상점가를 찾아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어 범죄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영옥 군 안전총괄과장은 “밝은 거리 환경 조성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군민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부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 선정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시민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공인센터다.

시민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

사, 위원회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까지 상동샘골보건지소 3층에 다양한 측정 장비를 갖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과학적인 체력 측정 및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 교실 운영, 체력인증서 발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